

광주 내진성능 갖춘 민간건축물 9.63% 불과

동구 3.24%, 남구 6.42%, 북구 8.18% 그쳐 학교 29.7%, 터널 등 공공시설물 62% 확보

광주지역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 비율이 고작 9.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물이나 일반주택 등을 말하며 광주지역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구의 경우 내진설계 비율은 3.24%였고, 광주지역 내진 설계 적용 대상 학교 건축물도 933곳 중 277곳인 29.7%만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내진성능을 갖춘 민간건축물은 전체 17만9534채 중 1만7293채로 9.63%에 불과했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3.24%, 남구 6.42%, 북구 8.18%, 서구 15.21%, 광산구 15.49% 등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물이 많은 동구, 남구, 북구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극히 저조했다.

또 터널·교량·고가도로·지하철·수도시설 등 주요 공공기반시설물 내진 설계 확보율도 지난해 말 기준, 62.2%에 그쳤다. 대상건축물 1017곳 중 384곳은 아직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주·북구5)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8회의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광주도 지진 안전도시가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민 대부분은 지진 대응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지진발생 긴급재난 문자를 받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비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창 성화봉송 대비 현장 점검 20일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평창 성화봉송에 대비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북구청 제공>

광주시의회, 시·시교육청 추경 심의 착수

시 514억·시교육청 359억 증가

광주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광주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4조5059억원)보다 514억원(1.1%)이 증가한 4조5573억원이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 보전충당금 125억원, 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94억원,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42억원 등이다. 최근 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시교육청 극적으로 합의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예산 67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또 국제수영연맹(FINA) 측이 일부 경

가장 관중석 규모 증대를 요구함에 따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예산도 30억원을 늘렸고, 지하철 양동역·상우역 엘리베이터 설치비 20억원도 포함했다.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존보다 359억원(1.8%)을 증액한 2조851억원이다.

예술과 부지매입비 100억원, 인건비 증가분 130억원, 학교 냉난방기 공사 21억원 등을 추가했다.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용 소프트웨어 개발·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등 22개 목적 지정사업비 26억원도 증액 편성했다.

한편 시의회는 21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위원회를 열어 27일 예정된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한다.

광주시, 중국과 친해지기 본격화

오늘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광주시 차이나센터 개소식

광주시가 중국과의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서구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서 운장현 시장과 추귀홍 주한 중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개소식을 한다.

광주시 차이나센터는 중국 문화행사, 중국어 교육, 중국 문화체험, 소식지 발행 등 광주와 중국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민간교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남권 중국교류 거점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국총영사관은 차이나센터에 전시품을 제공했고 중국대사관은 도서

와 DVD 1000여 점을 기증했다. 차이나센터는 21일부터 26일까지 개소 기념 한·중 국제제자교류전을 연다. 이 외에도 광주시와 중국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24~25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 광주·칭화포럼이 열린다. 문화산업·인문사회 분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송정원 칭화대 국가문화산업연구원장 등 중국 측 인사 10명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EV100 포럼'에 운장현 시장이 주요 연사로 초청돼 광주와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또 지난 6월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17 하계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스마트 휴먼시티 광주'의 비전을 소개했다.

문상필·명현관 의원 등 7명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문상필 시의원 전진숙 시의원 김용집 시의원 명현관 도의원 강성휘 도의원 서동욱 도의원 김태균 도의원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전진숙(북구4)·김용집(비례)의원과 전남도의회 명현관(해남1)·강성휘(목포1)·서동욱(순천3)·김태균(광양2) 의원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일 공약이행분야 문상필 의원, 좋은조례분야 전진숙·김용집 의원이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문상필 의원은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한 노력 등을 높게 평가받아 공약이행분야 대상자에 선정됐다.

좋은조례분야에서 영예를 안은 전진숙 의원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에 선정됐고 지역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과 목적의 적합성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았다. 또 김용집 의원은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임원의 시급성과 대안적 독창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주민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성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해 장애인·임산부 등 보행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서동욱 의원은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력 증진과 재능 계발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해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기여했고, 김태균 의원은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달 13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서 여수산단 등 '국가산단 안전 구축' 토론회

노후화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안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승용·정운천·윤소하·송기현·이용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와 여수시가 주관하는 '국가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수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한 가운데 화재·폭발사고 및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와 산·학·연·관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총괄 안전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태욱 한국위험물화학회장의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체계 제

정립에 따른 정부 역할의 필요성', 이익모 인하대 교수의 '전남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현황 및 이슈 분석'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국가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우기중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여수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이끔어 온 주역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지역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지대한 시점에서 화학사고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후원 | KORAIL 광주본부 SR | 본 상품은 우수해양관광상품공모전에 선정된 상품입니다 |

전복과 함께하는 땅끝마을·슬로시티 청산도여행 1박2일

1일차

- ▶ 용산역(07:20) / 광명역(07:40) 도착 후 KTX 탑승
- ▶ 수서역(07:10) / 지제역(07:30) 집결 후 SRT 탑승
- ▶ 용산역(07:49) / 광명역(08:04) / 수서역(07:40) / 지제역(07:59) 출발
- ▶ **광주송정역 도착 후 출발(09:37)**
- ▶ 송호마을 도착 후 중식(12:00)
- ▶ 송호리해수욕장, 전복 양식장 견학(12:40)
- ▶ 송호마을 출발(15:00)
- ▶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위치한 해남 땅끝마을 관광
- ▶ 땅끝 모노레일이용시 개별부담입니다.
- ▶ 땅끝마을 출발(16:30)
- ▶ 숙소 도착 후 배정 및 자유석식(17:00)

※교통편 : KTX or SRT 전용차 / 중식만 제공

2일차

- ▶ 조식 후 출발(07: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08:30)
- ▶ 완도여객선터미널 출발(09:00)
- ▶ 슬로시티 청산도 도착 후 관광-서편제, 봄의왈츠 세트장(09:40)
- ▶ 청산도 자유중식 후 출발(13: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13:40)
- ▶ 다산초당·백련사 도착 후 관광(15:00)
- ▶ 백련사 출발(17:00)
- ▶ 광주송정역광장 도착 후 송정 1913시장 관광 및 자유 석식(18:00)
- ▶ 광주송정역(KTX-19:39 or SRT-19:39) 출발(19:24)
- ▶ 광명역(20:54) / 용산역(21:10) / 지제역(21:05) / 수서역(21:32) 도착

※교통편 : KTX or SRT 전용차 / 조식만 제공

요금안내

출발역	성인			소인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용산역-수서역	250,000	245,000	240,000	190,000
광명역-지제역	245,000	240,000	235,000	185,000
광주송정역	160,000	155,000	150,000	140,000

참고사항

- 최소출발인원 : 10명 이상 출발 조건
- 포함사항 : 왕복 KTX 열차비, 차량비, 숙박비, 1일째 중식 2일째 조식, 양식장 현장견학비
- 불포함사항 : 여행자보험, 일정표상 식사3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여행사에서는 여행상품 운영시 여행자보험에 대해 가입할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연계버스는 출발인원에 따라서 차종이 변경됩니다. (승합차/중형차/대형차)
- 상품별 최소 출발인원이 부족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출발 4일전에 연락드립니다.
- 취소 환불규정 : 여행출발 3일전 취소시 80% 환불, 2일전 취소시 50% 환불, 1일~당일 환불불가
- 홈페이지 접수 : www.daewontour.com(대원여행사)

계좌번호 : 농협 301-526-7000-191 (주)대원여행사

해외여행·국내여행·할인항공권·KTX기차표·허니문·단체여행·골프투어·기차여행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 (현대자동차빌딩 옆) 메일 : daewonkr@hanmail.net
Tel. 062)526-7000 H. 010-9715-1000 www.daewontour.com

(주)대원여행사